월요광장

김천일 선생의 전집을 읽으며

박 석 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일본에 대해 과거사는 따지지 말고 미래로만 나가야 한다." 요즘 정부가 하는 참으로 잘못된 대일 외교의 본보기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부터 430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이 당한 죽음과 고통은 어느 정도였던가. 나주 출신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1537~1593)은 전라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국을 돌면서 왜적을 물리쳤다. 마침내 경상도 진주성을 함락하고 전라도로 침략하려던 왜군을 진주성에서 막다가 끝내 성이 함락되자, 전라도 의병장들인 최경회·고종후·김천일 부자는 진주의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하고 말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국권이 일본에 침탈당하자 전라도에서 의병이 분기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국가의 재산과 문화재들이 망가지고 말았던가. 1910년 끝내 나라가 망해 꼬박 35년 동안 우리 국민들과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못 죽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가. 그런데도 일본의 죄악은 묻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으니 일본이 배상해야 할 대법원 판결의 배상금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배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니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한 충신 열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하고 망국 이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오래 전부터 임진왜란 의병장들에 대한 숭모의 정을 깊게 느꼈지만, 그중에서도 건재 김천일 장군의 인물과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을 언제나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2017년 언양 김씨 대종회에서 간행한 '문열공 건재 김천일 선생 전집 Ⅰ·Ⅱ' 라는 책을 읽으며, 선생의 인물·학문·의병 업적 등에 대한 전모를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천일 장군은 나라에서 '창의사' (倡義使)라는 호칭을 내렸고 뛰어난 의병장으로 진주의 남강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버린 의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선생이 여러 고을의 목민관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벼슬아치였고, 일재 이항(李恒) 선생의 도학 사상을 이어받은 수제자로 학문이 깊고 높아 시호도 '충렬' (忠烈)에서 '문열' (文烈)로 승격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생의 업적이 그런대로 드러나니 흡족한 마음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의병장이 나왔는가. 대부분의 의병장들의 시호는 충(忠)자 아니면 무(武)자를 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많은 의병장 중에서도 경기도 출신 중봉 조헌 선생과 전라도 출신 건재 김천일 선생에게 '문열'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25일의 기록을 보자. "영의정 김수항이 임금께 아뢰다. '창의사 김천일은 바로 선조 때 유일(遺逸)의 선비입니다. 그러나 학문이 매우 독실하여 당시 여러 현인들이 추앙하고 정중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으며, 국난을 당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공훈을 세운 것이 혁혁하니, 더욱 그의 수양한 바가 올바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호를 '충렬'로 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시호이기는 하지만, 김천일은 유자(儒者)로서 문(文)자 시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결점인 듯합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문'으로 시호를 의정(議定)하도록 명하였다."

유자이자 학자로서의 건재 선생에 대한 평가가 그때 벌써 정확하게 세워졌음을 그런 데서 알게 해준다. 건재 선생은 두 아들을 두었으나 큰아들은 함께 순국하였고, 둘째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대부분 보존되지를 못했다. 일재 이항 선생의 수제자로 일재 선생의 행장(行狀)을 선생이 지었다는 기록만 있지 그런 글조차 전해지지를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애초에 전해지는 '건재집(健齋集)'에는 2편의 부(賦), 1편의 절구, 1편의 율시, 3편의 상소문, 13편의 편지, 1편의 명(銘), 3편의 제문, 1편의 격문, 기타 1편 등 도합 26편의 글이 왜소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전집을 통해 실록 등 모든 자료에서 선생에 관한 기록을 모두 수집하여 전집으로 만들었으니, 선생의 사상과 철학이야 제대로 알 길이 없으나, 사람됨과 의병의 업적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친일 외교로 기울어 버린 오늘, 호남의 자랑이요 조선의 자랑인 학자 의병장 문열공을 제대로 아는 데 우리 모두 게으르지 말자.

수필의 향기

'행복한' 이야기

김 향 남
수필가

누가 내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글쎄 그게 뭘까 오히려 되물어 볼 확률이 높다. 누구나 원하는 것인 줄도 알겠고, 좋은 것인 줄도 알겠고,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긴 알겠는데, 바로 이거야! 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저 마음의 움직임을 몇 마디의 말로써 표현해 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대신 알려진 이야기 몇 편을 꺼내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먼저 '행복한 한스' 이야기. 사실 '행복한 한스'는 '어리석은 한스' 혹은 '바보 한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한스'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황금 한 덩어리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다른 것들과 바꾸어나가다 결국은 빈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뻐하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어진다. 물론 고향까지는 아직 멀고 먼 데다 출발할 때와는 달리 몸과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져 아무리 황금이라도 던져 버리고 싶었을 것은 이해가 된다. 지치고 힘들 때는 모든 게 다 귀찮은 법이니까. 그렇더라도 그 금덩이를 정말로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린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금덩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자신의 노고는 물론 고향의 어머니까지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가장 강력한 조건이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한스'는 보기 좋게 우리를 넘어선다. 금덩이에서 말 한 마리로, 말에서 암소로, 암소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거위로, 거위에서 숫돌로, 숫돌에서…. 그렇게 탈탈 빈손이 된 '한스'는 아쉬움은 잠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고향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음은 '행복한 왕자'. 그는 부유하고 모자람 없이 살아온 궁전의 왕자였다. 죽은 후 거리의 동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시의 온갖 불행과 가난을 마주하게 된다. 어느 날 뒤늦게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동상에 앉게 되고, 왕자는 제비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 달라고 간청한다. 제비는 왕자를 대신해 차례차례 그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보석들을 떼어다 힘든 이웃들을 돕는다. 그러다 돌아갈 시기를 놓친 제비는 그만 추위로 얼어 죽고, 다 떼어내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 역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어느 날 신이 천사를 불러 지상의 도시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두 가지만 가져오라고 한다. 천사는 쓰레기통 속에서 왕자의 녹슨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지고 간다. 그러자 신은 흡족해 하면서 이들을 축복했다는 이야기.

'행복한 청소부'는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이야기다. 주인공은 날마다 바흐, 베토벤, 하이든, 괴테, 브레히트 등 음악가와 시인들의 거리 표지판을 닦는 일을 한다. 그는 아주 성실한 청소부였으며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는 일이 생겼다. 한 아이와 엄마가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자기가 매일 닦는 표지판의 주인공들, 즉 예술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부터 청소부는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도 가고 거실에 앉아 밤새 음악을 들으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낀다. 또 도서관에 가서 작가들이 쓴 책들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예술가들에 관해 쓴 비평서까지 읽게 된다. 어느 날부터는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고 시를 읊조리며, 가곡을 부르고 읽은 소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청소를 한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게 되고 마침내 텔레비전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된다. 심지어는 네 군데 대학에서 강연을 요청해 오지만 곧 거절하는 답장을 쓴다. "나는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세 편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각각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한스'는 가볍고 후련한 몸과 마음에, '왕자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비의 실천에, '청소부 아저씨'는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자기실현의 과정에 있다고 한다. 마음이 개운할 때 행복하고, 애틋하게 사랑할 때 행복하며, 공부하고 성장할 때 행복하다고. 행복은 가뿐하고 따스하며 뿌듯하게 와닿는 것이니, 부디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기 고

서남권의 미래 경쟁력 '목포·신안 통합'

이 현 진
전 목포시청 국장·경영학 박사

박람회장을 찾는 구름 인파로 순천만은 활기가 넘친다. 호수에 떠 있는 언덕 섬, 아스팔트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그린아일랜드 등. 자연과 사람, 지역의 정체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박람회장이 너무 감동적인데, 그 규모나 콘텐츠 내용이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여수·순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게 많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해 확충된 교통·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수와 순천, 남해안권(부산·경남)이 연계된 광역 관광벨트가 확고히 구축되어 국제 관광도시 반열에 성큼 올라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남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관광 분야는 답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협소한 행정구역 때문에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 꿈을 펼치기가 여의치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행정구역 확장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된 섬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비록 무안반도 통합은 좌초됐지만 조만간 목포·신안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국가 성장축 서남권'의 변화를 선도할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통합이 왜 중요한가? 천혜의 섬과 갯벌 등으로 이뤄진 서남해안은 수려한 해안 경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숨겨진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데 국제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는 속도는 더디다.

왜 그럴까? 그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행정통합 무산이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원대한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지정학적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통합을 밑거름 삼아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여수, 순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광역화가 절실하다.

실제로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잠재력, 그리고 바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직접 체감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또는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를 들어 보자. 10여 년 전 북경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지인을 목포로 초빙했다. '맛의 도시' 명성에 걸맞은 음식 문화 체험과 케이블카를 활용한 유달산과 다도해의 절경을 구경하고 이튿날 천사대교를 이용하여 '퍼플섬'으로 불리고 있는 박지도에 갔는데 바다와 어우러진 퍼플섬의 매력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신비롭게 보여 지는 것 같다. 해상케이블카를 제외하고는 상징적인 관광 시설물이 없는 것은 아쉬웠지만 청정 해변을 조망하는 드라이버 코스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했다. 바다 내음을 맡으며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 천사대교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은 실로 장관이다. 드넓은 공간에 점점이 떠있는 많은 섬들, 쪽빛 바다와 맞닿아 있는 듯한 푸른 하늘이 다도해의 미관과 넉넉함을 멋지게 그려 줬다.

중국인 친구는 매우 만족스러워 하며 목포권이 이렇게 인상적일 줄은 몰랐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케이블카의 경우 중국에도 황산, 장가계, 태산 등 유명한 관광지마다 많이 있다. 특히 장가계의 천문산 케이블카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산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달산의 기묘한 절경과 다도해가 어우러진 목포 해상케이블카와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부러워했다.

비전이란 누구에게나 또 어느 지역에나 있어야 할 공동의 가치관이다. 이렇듯 서남권에는 잠재된 비전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 다도해를 배경 삼은 값진 볼거리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특색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으며 한국을 대표할 전통문화와 맛갈스런 남도 음식 등 공유할 거리가 많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 서남부의 중심 도시를 넘어 세계 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社 說

민주 김은경 혁신위, 마지막 쇄신 기회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앞서 위원장에 인선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당내 갈등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쇄신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에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선임 사실을 알리며 "원칙주의자적이고 개혁적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혁신 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꾸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혁신 기구의 구성과 향후 역할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주 안에 현역 의원 서너 명을 포함한 열 명 안팎으로 혁신위가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표출된 당내 현안 해결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방향을 잃고 추락을 거듭, 민심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해소도 절실하다.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룰 정비와 대의원제 폐지 등 정치 개혁 의제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당 쇄신 방안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이번 혁신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실추된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팬덤 정치 극복과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의도 시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감동을 주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너진 경찰 기강…총체적 조직 점검 필요하다

광주 지역 경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물의를 일으키면서 경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절도·음주운전은 물론 피의자 관리 부실까지 각종 비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불문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찰 비위 건수는 벌써 여섯 건이나 된다. 유흥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성추행하고 남의 차량을 절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사안들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징계 건수도 2019년 일곱 건, 2020년 여섯 건, 2021년 열두 건, 2022년 여덟 건으로 모두 서른아홉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에 대한 징계 양정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일반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경징계(감봉)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찰 공무원은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처벌만으로는 비위를 척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경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입 경찰이 1년 동안 거쳐야 하는 시보 동안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위나 부적응 사유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총체적 조직 점검과 강도 높은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한 직업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참된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해외 반출 문화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27개국 22만 9655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불법 반출로 추정된다. 문화재 약탈이 극심했던 일제 강점기를 반영하듯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9만 5622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241점, 독일 1만 4286점, 중국 1만 3010점 순이다. 현재 파악된 우리 문화재 숫자는 어디까지나 공식 집계다. 전 세계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공식 파악되지 않은 개인 소장 문화재가 더 많다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많다.

최근 고려시대 사경(寫經)인 '묘법연화경 권제6'(妙法蓮華經 卷第6)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상을 기본으로 한 경전인 '묘법연화경'의 내용을 금·은색 안료를 써 필사한 경전이다. 지난해 6월 일본인 소장자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유물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소장자의 안목에 새삼 놀라면서도 우리 문화재의 처지를 생각하면 씁쓸하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나선 것은 1958년 4차 한일회담 문화재위원회 회의부터다. 당시 정부는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유 재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남선합동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1922년부터 30년간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이다.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된 '오구라 컬렉션'에 포함된 우리 문화재는 10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금동관모'를 비롯한 8건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30여 건은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오구라 컬렉션을 환수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2012년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이 설립돼 해외 문화재 환수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돌아온 문화재는 1만 1034점에 그치고 있다.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개인·기업 등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 뜻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